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

유필숙¹⁾ · 김은실²⁾ · 김혜경²⁾ · 이성희²⁾ · 형희경³⁾ · 엄애용³⁾ · 김희선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임상간호실습은 간호학생의 직전 교육(pre-service training)으로서 일차적으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간호사로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또한, 임상간호실습은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서 소질과 적성이 맞는 지를 확인해보고 간호사로서 보람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이혜주, 윤여각과 전도근, 2004). 또한, 임상실습은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실습지도간호사를 역할모델로 인식하고 미래를 예상하며, 단순히 간호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최미숙, 2005; Cope, Cuthbertson, & Stoddarte, 2000; Dunn, Ehrich, Mylonas, & Hansford, 2000).

그러나 일정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해결해야하는 환자의 증가 및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복잡한 급성 질환의 증가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시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며 학습결과에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Tanner, 2002). 이러한 급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임상환경 속에 처해 있는 간호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더 나은 임상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주면서 학습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특성 중의 하나가 교수효율성이다(최미숙, 2005; Nahas & Yam, 2001). 즉, 전문지식과 능력, 원조자로서의 역할, 인간관계 능력, 효율적 교수법

등을 갖춘 교수자의 교수활동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임상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영향을 주며(Gignac-Caille & Oermann, 2001), 간호학생들에게 실습에 임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조직적인 기술과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대학 교수와 임상간호사가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는 강의와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급변하는 의료분야의 이해와 간호실무의 기술수준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최공옥, 조현숙과 김정엽, 2001).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지도를 임상현장에 위임하고 있으나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교육지도경험이나 준비가 부족한 간호사가 임상실습 지도를 맡음으로써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의 교수자인 간호사와 학습자인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연구함으로써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간호학 연구분야에서 임상실습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김미애, 1996; 김순옥, 1997; 김일옥과 박재순, 2006; 최미숙, 200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에 의존하여 수행되었을 뿐(최공옥 등, 2001) 양 집단을 고려한

주요어 : 임상실습, 간호사, 간호학생, 교수효율성

- 1) 예수병원 수간호사, 2) 예수병원 책임간호사
- 3)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전임강사(교신저자 형희경 E-mail: hkh00@hanmail.net)
- 4) 전북과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투고일: 2008년 8월 1일 수정일: 2008년 8월 12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0일

임상실습 교수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윤지숙, 1997).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연구는 실제 임상실습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상호 인식을 토대로 수행될 때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효율성의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두 집단 간의 인지정도를 비교하여 임상실습 교수효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지도자인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임상실습 교수효율성의 인지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수효율성의 인지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비교한다.
-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파악한다.

용어정의

● 교수효율성

교수효율성(teaching effectiveness)이란 교수(faculty)가 다양한 교수 활동을 통해서 정해진 교육목적에 달성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적 결과에 대한 질적 특성이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교육연구소, 2000).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사의 교수 행위가 교육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며, Reeve(1994)가 개발한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측정도구를 김미애(1996)가 번안한 도구와 최공옥 등(2001)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설문지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수효율성의 인지정도를 조사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 소재 P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P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M대학교와 J대학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P병원은 600명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교육과장이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15부서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 한 부서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학생 수는 duty당 2~4명 정도이다. 설문조사를 위해 다음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전수조사 하였다.

- 간호사
 - 임상 실습을 지도하고 있으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
- 간호학생
 - P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M대학교와 J대학 간호학생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

연구 도구

교수효율성 측정 도구는 Reeve(1994)가 개발한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측정도구를 김미애(1996)가 번안한 도구와 최공옥 등(2001)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50문항 중 교수(faculty)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37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수효율성 측정 도구는 5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요인별 항목은 요인 1 「전문 지식과 능력」 6문항, 요인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11문항, 요인 3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6문항, 요인 4 「격려와 지지」 5문항, 요인 5 「교수법과 평가」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 거의 그렇지 않다 ’ 1점, ‘ 약간 그렇지 않다 ’ 2점, ‘ 보통이다 ’ 3점, ‘ 약간 그렇다 ’ 4점, ‘ 매우 그렇다 ’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Reeve(1994)가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5$ 이였다. 요인별 신뢰도는 「전문 지식과 능력」 Cronbach's $\alpha=.74$,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Cronbach's $\alpha=.86$,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Cronbach's $\alpha=.83$, 「격려와 지지」 Cronbach's $\alpha=.74$, 「교수법과 평가」 Cronbach's $\alpha=.80$ 이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기간은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실습 병동과 간호대학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가 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간호사 17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자료는 170부로 회수율은 97%이었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5부를 제외한 16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간호학생은 M대학교 215명, J대학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294부로 회수율은 98%이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5부를 제외한 28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 간호사,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수효율성의 인지정도 및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로 산출하였다.
- 간호사,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효율성의 인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one-way ANOVA, t-test,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

간호사의 나이는 20대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 26.1%, 30대 22.4%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평균나이는 37.5세였다. 근무년한은 5년 미만 42.1%, 10년 이상 40.2%, 5년-10년 미만 17.7% 순이었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 85.5%, 책임간호사 7.3%, 수간호사 7.3%이었다. 최종학력은 학사 49.4%, 전문학사 44.5%, 석사 이상 6.1%였으며, preceptor 경험은 38.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 만족도는 보통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40.7%, 불만족 13.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병동은 일반병동이 60.6%, 중환자실 23.0%, 수술실 10.9%, 기타 5.5%순이었다.

간호학생의 나이는 19-24세가 91.3%, 성별은 여자가 9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제는 4년제 간호학생 72.0%, 3년제 간호학생 28.0%였다. 실습 년차는 1년차 50.5%, 2년차 49.5%였으며,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0.3%로 가장 높았고, 만족 41.0%, 불만족 8.7%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69.1%, 보통 26.0%, 불만족 4.9%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간호사 (n=165)	나 이	20대	85	51.5
		30대	37	22.4
		40대 이상	43	26.1
		평균 : 37.54±8.70세, 범위 : 22~56세		
	근무년한	5년 미만	69	42.1
		5년-10년 미만	29	17.7
		10년 이상	66	40.2
		평균 : 9.73±8.63, 범위 : 0.2~35년		
	직 위	일반간호사	141	85.5
		책임간호사	12	7.3
		수간호사	12	7.3
	최종학력	전문학사	73	44.5
		학사	81	49.4
		석사 이상	10	6.1
		preceptor 유	63	38.2
preceptor 경험유무		무	102	61.8
간호직 만족도	불만족	22	13.6	
	보통	74	45.7	
	만족	66	40.7	
근무병동	일반병동	100	60.6	
	중환자실	38	23.0	
	수술실	18	10.9	
	기타	9	5.5	
나 이	19세-24세	262	91.3	
	25세 이상	25	8.7	
	평균 : 21.60±2.37, 범위: 19~40세			
성 별	남	12	4.2	
	여	276	95.8	
학 제	4년제	208	72.0	
	3년제	81	28.0	
학 년	M교	3학년	107	51.4
		4학년	101	48.6
	J교	2학년	39	48.1
		3학년	42	51.9
실습년차	1년차	146	50.5	
	2년차	143	49.5	
간호학 만족도	불만족	25	8.7	
	보통	145	50.3	
	만족	118	41.0	
임상실습 만족도	불만족	14	4.9	
	보통	75	26.0	
	만족	199	69.1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의 인지정도 및 차이

간호사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45±.48점 이었으며, 각 요인별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는 「전문지식과 능력」(3.60±.54)이 가장 높았으며,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3.55±.51), 「격려와 지지」(3.47±.63), 「원조자로서의 유용성」(3.46±.63)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수법과 평가」(3.38±.57)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수효율성 인지

정도를 문항별로 보면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적절하게 수정을 해 준다’(3.95±.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개인적인 비밀을 철저히 지켜준다’(3.86±.84), ‘학생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준다’ (3.84±.80), ‘매우 냉담하고 무관심한 편이다’(3.72±.93), ‘전문직 역할 모델로 생각한다

다’(3.70±.8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충분한 지도를 해 준다’ (3.12±.89), ‘간호사의 지도 내용이 때때로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3.18±.84), ‘유머감이 있다’(3.19±.83)등은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의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표 2>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 및 차이

요인	문항	간호사 (n=165) (M±SD)	간호학생 (n=289) (M±SD)	t	P
전문 지식과 능력	전문직 역할 모델로 생각한다.	3.70±.86	3.99±.94	-3.246	.001
	학생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 준다.	3.84±.80	3.66±.88	2.144	.033
	간호대상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3.52±.78	3.04±.84	6.015	.000
	간호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	3.66±.76	3.49±.74	2.276	.023
	간호사의 지도내용이 때때로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3.18±.84	3.10±.85	.965	.335
	전반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	3.70±.71	3.70±.72	-.049	.961
	소계	3.60±.54	3.50±.54	1.877	.061
대인 관계 및 의사 소통	유머감이 있다.	3.19±.83	2.76±1.01	4.712	.000
	간호사에 대해 충분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3.30±.87	3.16±.88	1.649	.100
	학생에게 새로운 간호를 습득하도록 도전하는데 도움을 준다.	3.42±.80	3.30±.88	1.446	.149
	실습지의 직원들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37±.79	2.85±.87	6.307	.000
	학생들은 간호사가 자신들을 존중해준다고 느낀다	3.39±.73	2.98±.93	4.822	.000
	학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66±.77	3.31±.71	4.817	.000
	학생의 개인적인 비밀을 철저히 지켜준다.	3.86±.84	3.24±.74	8.217	.000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적절하게 수정을 해 준다.	3.95±.71	3.74±.77	2.854	.005
	매우 냉담하고 무관심한 편이다*	3.72±.93	3.12±.98	6.347	.000
	매우 다정하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다.	3.51±.68	3.25±.76	3.628	.000
	교육내용을 학생이 알기 쉽게 잘 가르쳐 준다.	3.65±.73	3.49±.77	2.171	.030
	소계	3.55±.51	3.19±.52	7.035	.000
원조사 로서의 유용성	학생을 항상 진솔하게 대해 준다.	3.62±.84	2.98±.88	7.645	.000
	항상 앞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3.45±.87	2.96±.93	5.504	.000
	원조사(resource person)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3.31±.77	3.11±.84	2.544	.011
	학생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준다.	3.36±.88	2.70±.88	7.677	.000
	실습에 미숙한 학생에게 모든 절차를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준다.	3.34±.88	3.05±.93	3.225	.001
	학생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간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3.65±.77	2.94±1.00	7.863	.000
	소계	3.46±.63	2.95±.65	8.091	.000
격려와 지지	간호과정 적용 시 새로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와준다.	3.50±.85	3.23±.94	3.069	.002
	학생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29±.90	3.18±.84	1.272	.204
	실습 시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자극하여 준다.	3.63±.84	3.77±.90	-1.610	.108
	학생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해 준다.	3.48±.77	3.41±.87	.825	.410
	간호를 제공하는 동안 방해하지 않고 학생을 지켜봐 준다.	3.45±.82	3.28±.87	2.129	.034
	소계	3.47±.63	3.37±.60	1.633	.103
교수법과 평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무와 연결시켜 준다.	3.62±.82	3.62±.94	-.014	.989
	항상 충분한 지도를 해 준다.	3.12±.89	3.05±.92	.794	.428
	계속 병동을 순회하면서 충분한 조언을 해준다.	3.35±.84	3.02±.99	3.659	.000
	학생에게 평가시간을 이용하여 조언을 해 준다.	3.33±.95	2.92±1.04	4.164	.000
	간호사는 실습장소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다.	3.56±.92	3.64±.88	-.886	.376
	실습 평가 시 타당한 기준을 사용한다.	3.55±.85	3.01±.84	6.551	.000
	간호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실제 학생의 능력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3.20±.79	2.96±.82	3.068	.002
	학생의 능력에 맞는 간호대상자를 적절하게 배정해준다.	3.27±.79	2.89±.85	4.580	.000
	실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상자를 배정해 준다.	3.40±.77	2.99±.88	5.067	.000
	소계	3.38±.57	3.12±.54	4.797	.000
	전체 평균	3.45±.48	3.19±.45	5.636	.000

* 역문항으로 역환산 처리함.

평균 3.19±.45점 이었으며, 각 요인별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는 「전문지식과 능력」(3.50±.54)이 가장 높았으며, 「격려와 지지」(3.37±.60),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3.19±.52), 「교수법과 평가」(3.12±.54), 「원조자로서의 유용성」(2.95±.65)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보면 ‘전문직 역할 모델로 생각 한다’(3.99±.9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시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자극하여준다’(3.77±.90),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적절하게 수정을 해 준다’(3.74±.77), ‘학생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준다’(3.66±.8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요구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준다’(2.70±.88), ‘유머감각이 있다’(2.76±1.01), ‘실습지의 직원들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85±.87) 등의 문항에 대한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 평균은 각각 5 점 만점에 간호사 3.45±.48점, 간호학생 3.19±.45점으로 간호

사가 간호학생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636, p=.000). 요인 중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서 간호사(3.55±.51)가 간호학생(3.19±.52)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7.035, p=.000). 「원조자로서의 유용성」에서 간호사(3.46±.63)가 간호학생(2.95±.65)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091, p=.000). 「교수법과 평가」에서 간호사(3.38±.57)가 간호학생(3.12±.5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797, p=.000). 「전문지식과 능력」에서 간호사(3.60±.54)가 간호학생(3.50±.54)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77, p=.061). 「격려와 지지」에서 간호사(3.47±.63)가 간호학생(3.37±.60)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633, p=.103)<표 2>.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수 효율성 인지정도의 차이

<표 3>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수효율성 인지정도의 차이

특 성	구 분	교수효율성				
		M±SD	F or t	P	scheff'e	
간호사 (n=165)	나 이	①20대	3.26±.42	26.762	.000	①,②<③
		②30대	3.41±.45			
		③40대 이상	3.84±.39			
	근무년한	①5년 미만	3.26±.45	19.913	.000	①,②<③
		②5년-10년 미만	3.29±.39			
		③10년 이상	3.71±.44			
	직 위	①일반간호사	3.38±.46	11.653	.000	①<②,③
		②책임간호사	3.77±.50			
		③수간호사	3.94±.31			
	최종학력	①전문학사	3.33±.47	4.760	.010	①<②
②학사		3.52±.45				
③석사 이상		3.70±.61				
preceptor 경험 유무	유	3.47±.52	.512	.609		
	무	3.43±.46				
간호직 만족도	①불만족	3.26±.58	10.196	.000	①<③	
	②보통	3.32±.42				
	③만족	3.65±.45				
간호학생 (n=289)	나 이	19세-24세	3.19±.45	-.848	.397	
		25세 이상	3.27±.44			
	성 별	남	3.57±.47	2.926	.004	
		여	3.18±.44			
	학 제	4년제	3.14±.44	-3.326	.001	
		3년제	3.34±.45			
	실습년차	1년차	3.24±.40	1.952	.052	
		2년차	3.14±.49			
	간호학 만족도	①불만족	2.85±.38	10.530	.000	①<③
		②보통	3.06±.39			
③만족		3.27±.45				
임상실습 만족도	①불만족	2.82±.37	40.690	.000	①<②<③	
	②보통	3.06±.40				
	③만족	3.44±.39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는 나이에서 40대 이상(3.84±.39), 30대(3.41±.45), 20대(3.26±.42)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6.762, p=.000).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40대 이상군이 20대군과 30대군보다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 년한에서 10년 이상군(3.71±.44), 5년에서-10년 미만군(3.29±.39), 5년 미만군(3.26±.45) 순이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9.913, p=.000), 사후 검정 결과 10년 이상군이 5년에서-10년 미만군과 5년 미만군보다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수간호사(3.94±.31), 책임간호사(3.77±.50), 일반간호사(3.38±.46)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1.653, p=.000). 사후 검정 결과 수간호사,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 석사군(3.70±.61), 학사군(3.52±.45), 전문학사군(3.33±.47) 순이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760, p=.010).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학사군이 전문학사군보다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preceptor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경험이 있는 군(3.47±.52)이 없는 군(3.43±.46)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512, p=.609). 간호직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만족군(3.65±.45), 보통군(3.32±.42), 불만족군(3.26±.58)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10.196, p=.000),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간호직 만족군이 불만족군보다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수 효율성 인지정도는 나이에서 25세 이상군(3.27±.44)이 19세-24세(3.19±.45)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848, p=.397).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3.57±.47점으로, 여학생 3.18±.44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926, p=.004). 학제에서 3년제 간호 학생군(3.34±.45)이, 4년제 간호 학생군(3.14±.4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326, p=.001). 실습 년차에서 1년차(3.24±.40)가 2년차(3.14±.49)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952, p=.052). 간호학 만족도에서 만족군(3.27±.45), 보통군(3.06±.39), 불만족군(2.85±.38)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530, p=.000).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만족군이 불만족군보다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만족(3.44±.39), 보통(3.06±.40), 불만족(2.82±.37)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0.690, p=.000). 사후 검정 결과 임상실습 보통군이 불만족군보다 높았고, 만족군은 불만족군과 보통군보다 교수효율성 인지정도가 높았다<표 3>.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지도자인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임상실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은 5점 만점에 간호사는 3.45점, 간호학생은 3.19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수효율성을 조사한 손행미, 김숙영, 이화인, 전은미 및 한신희(1998)의 연구결과 나타난 3.47점과 비슷한 결과이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애(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2.95점, 유영환(1997)의 연구결과 나타난 2.99점, 최미숙(2005)의 연구 결과인 3.05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간호학생보다 교수효율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지숙(1997)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3.42점, 간호학생은 2.6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손행미 등(1998)은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의 인지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임상실습 지도를 하는 간호사와 임상실습 지도를 받는 간호학생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교육 수혜자인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여야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두 군 모두 「전문지식과 능력」 요인에서 각각 간호사 3.60점, 간호학생 3.50점으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조경미와 이성은(2002)의 연구에서 전문적 능력이 3.93점, 최공욱 등(2001)의 연구에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각각 3.93점, 3.25점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인 요인은 간호사는 「교수법과 평가」로 3.38점, 간호학생은 「원조자로서의 유용성」으로 2.9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실습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최공욱 등(2001)의 연구에서 원조자로서의 유용성이 낮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다.

하위요인 별로 비교한 결과 「전문지식과 능력」 요인에서는 간호사나 간호학생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문항별 분석에서 ‘전문직 역할 모델로 생각한다’에서 간호사 3.70점, 간호학생 3.99점으로 간호학생이 더 높은 교수효율성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것은 간호학생이 간호사를 앞으로의 전문직 역할 모델로 강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임상실습 지도를 하는 간호사에게 업무와 실습지도 면에 있어서의 강한 책임감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지도 내용이 때때로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에서 간호사의 교수효율성이 3.18점으로 가장 낮았고, 간호학생이 3.10점으로 낮게 나왔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여러 병원을 실습하면서 병원마다의 간호실무지침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에서의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며, 간호사는 병원에 실무지침은 마련되어 있지만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훈련이 부족하고, 실습을 지도하는 간호사의 경력의 차이로 인해 실무경험이 짧은 간호사도 실습지도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요인에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각각 3.55점, 3.1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중 ‘유머 감각이 있다’, ‘실습지의 직원들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은 간호사가 자신들을 존중해 준다고 느낀다’, ‘학생의 개인적인 비밀을 철저히 지켜준다’, ‘매우 냉담하고 무관심한 편이다’의 문항 등에서 학생들이 교수효율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Lee and Williams(최미숙, 2005년에 인용됨)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기술을 간호학생과 임상교육자 모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 바쁜 업무와 짧은 실습기간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대 간호학생의 일 대 일 교수-학습자 matching 교육과 같은 실습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거나 실습시작 전에 학습내용의 공유를 통해 교육자가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적인 신뢰감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요인에서는 간호사는 3.46점 간호학생은 2.9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별 분석에서 ‘학생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준다’, ‘학생을 항상 진솔하게 대해준다’, ‘학생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간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항상 옆에서 도움을 제공 한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영신(1977)은 간호사가 간호학생의 실습교육에 관심은 있으나 병원의 상황이 바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간호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전문지식과 능력은 있으나 학생이 언제라도 도움을 구하거나 학생의 필요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원조자로서의 유용성은 떨어짐을 보여주므로 간호사 자신이 간호제공자임과 동시에 교육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에게 교육하고 관리자는 학생교육에 대한 내외적 보상체계를 통해 동기부여를 모색해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격려와 지지」 요인에서는 간호사 3.47점, 간호학생 3.37점으로 간호사가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호과정 적용 시 새로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와준다’의 문항과 ‘간호를 제공하는 동안 방해하지 않고 학생을 지켜봐준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임상실습 현장이 환자를 대상

으로 생명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수를 허락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 현실 여건상 간호사들이 적용하는 간호과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 간호과정을 적용하거나 간호학생이 간호를 제공하는 동안 간호사는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기다려 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akaren, Dumit, Marina and Kassak (김영희, 2006년 인용됨)은 새롭고 스트레스적인 두려운 임상 환경에 직면했을 때 실습지도자의 태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변화를 보인다고 했으며, 김영희(2006)는 첫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교수효율성은 격려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에게 학생들의 교육 시 지지자로서의 태도가 교수효율성을 높이는 주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호사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교수법과 평가」 요인에서는 간호사 3.38점, 간호학생 3.1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속 병동을 순회하면서 충분한 조언을 해 준다’, ‘학생에게 평가시간을 이용하여 조언을 해 준다’, ‘실습 평가 시 타당한 기준을 사용 한다’, ‘간호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실제 학생의 능력과 일치한다고 생각 한다’, ‘학생의 능력에 맞는 간호대상자를 적절하게 배정해 준다’, ‘실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상자를 배정해 준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효율성 있는 임상실습 교수의 특성으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며 임상실습 지도자의 실습교육 평가가 주관적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성은, 1997; Stuebbe, 1980). 본 연구결과는 실습 지도자인 간호사가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임상실습 교수방법을 교육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연의 일 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부가적으로 해야 하므로 많은 부담과 함께 효율적인 교육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임상실습 교수방법의 교육프로그램을 병원이나 학교 측에서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40대 이상, 10년 이상의 근무 년한, 직위에서는 책임 간호사나 수간호사가, 최종학력에서는 전문학사보다 학사, 그리고 간호직에 만족한 경우가 불만족한 경우보다 교수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상에서의 실습지도 시간은 경력이 적은 일반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간호사가 간호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일반간호사들이 실습지도에 대한 교수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년제 학생이 4년제

학생보다 교수효율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4.2%, 3년제 학생이 27.8%로 소수를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 학제와 교수효율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조정미와 이성은(2002)의 연구에서는 교수효율성이 높으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두 연구 결과는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간호학생들의 학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인지하는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효율성은 차이가 있으며 간호학생보다 간호사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의사소통 요인,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교수법과 평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병원과 학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학생 간의 인간적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간호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대해 간호사와 함께 공유하여 간호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사 자신이 교육자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교수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교수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지도자인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의 점수는 5점 만점에서 3.45점으로 보통수준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는 「전문지식과 능력」이 가장 높았고,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격려와 지지」,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순이었으며, 「교수법과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적절하게 수정을 해 준다’, ‘학생의 개인적인 비밀을 철저히 지켜준다’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항상 충분한 지도를 해 준다’, ‘간호사의 지도 내용이 때때로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인지 정도가 낮았다.
-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의 점수는 5점 만점에서 3.19점으로 보통수준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는 「전문지식과 능력」이 가장 높았고, 「격려와 지지」,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교수법과 평가」,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역할 모델로 생각 한다’, ‘실습 시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자극하여준다’,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적절하게 수정을 해 준다’ 등에 대해 높은 인지정도를 나타냈고, ‘학생이 요구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준다’, ‘유머감각이 있다’ 등의 문항에 대한 인지정도는 낮았다.

-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은 각각 5점 만점에 간호사는 3.45점, 간호학생은 3.19점으로 간호사가 간호학생보다 교수효율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교수법과 평가」에서 간호사가 간호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고, 근무 년한이 많은 간호사, 직위와 학력이 높은 간호사의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간호직에 만족하는 간호사가 불만족하는 간호사 보다 높은 교수효율성 인지정도를 보였다.
- 간호학생의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학제는 3년제 학생이, 간호학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높은 교수효율성 인지 정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간호사가 간호학생보다 교수효율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교수법과 평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와 병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인관계 및 교수자의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시스템의 마련, 간호사의 교육자로서의 인식확대를 위한 모색,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수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애 (1996). *임상간호 실습 교육의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김순옥 (1997).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교수효율성과의 관계 연구*. *순천청암대학 논문집*, 21(1), 1-29.
- 김영희 (2006). *간호 대학생의 기본간호 임상실습에 관한 자율성, 교수효율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기본간호학회지*, 13(1), 6-14.
- 김일옥, 박재순 (2006). *모성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4년제 간호대학(학과)를 중심으로-*. *여성간호학회지*, 12(1), 12-21.
-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교육연구소 (2000). *교육학 용어사전*. 서

- 울: 하우기획출판.
- 손행미, 김숙영, 이화인, 전은미, 한신희 (1998). 임상실습 지도자의 부담감과 교수효율성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187-203.
- 유영환 (1997). *간호전문대학 임상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윤지숙 (1997). *임상간호사의 실습교육 효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이성은 (1997). 우리나라 간호교육기관의 현장실습 교육 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2), 226-245.
- 이해주, 윤여각, 전도근 (2004). *평생교육사의 현장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임영신 (1977). *간호학생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병원 간호원의 태도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조경미, 이성은 (2002). 임상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상관성 연구. *경인논집*, 1(2), 123-135.
- 최공옥, 조현숙, 김정엽 (2001). 간호학생 임상실습교육에서 실습지도자활용의 교수효율성. *가천길대학 논문집*, 29호, 51-58.
- 최미숙 (200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Cope, P., Cuthbertson, P., & Stoddart (2000). Situated learning in the practice placement. *J Adv Nurs*, 31(4), 850-856.
- Dunn, S. V., Ehrich, L., Mylonas, A., & Hansford, B. (2000). Students' perceptions of field experienc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J Nurs Educ*, 39(9), 393-400.
- Gignac-Caille, A. M., & Oermann, M. H. (2001).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of effective clinical instructors in ADN programs. *J Nurs Educ*, 40(8), 347-353.
- Nahas, V. L., & Yam, M. C. (2001). Hong Ko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effective clinical teachers. *J Nurs Educ*, 40(5), 233-237.
- Reeve, M. M.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 *J Nurs Educ*, 33(1), 15-20.
- Stuebbe, B. (1980). Student & faculty perspectives on the role of nursing instructors. *J Nurs Educ*, 19(7), 4-9.
- Tanner, J. (2002). Clinical education, CICA 2010. *J Nurs Educ*, 41(2), 51-52.

The Perception Degree of Teaching Effectivenes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Yu, Pil Suck¹⁾ · Kim, Eun Sil²⁾ · Kim, Hye Kyung²⁾ · Lee, Sung Hee²⁾
 Hyoung, Hee Kyoung³⁾ · Eom, Ae Yong³⁾ · Kim, Hee Sun⁴⁾

- 1) Head Nurs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2) Charge Nurs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3) Full-time Lecturer,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4) Full-time Lecturer, Jeonbuk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se as a preliminary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by comparing the perception of teaching effectiveness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65 nurses and 289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 to 16, 2008. The research instruments used an effective clinical instructors which was developed by Reeve(1994). **Result:** The perception of teaching effectiveness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were 3.45 and 3.19 respectively and it showed that nurses' perception of teaching effectiveness are higher than that of nursing students. Nurses had strong points in the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vailability as a supporter」, 「teaching method and evaluation」. In additions, the teaching effectivenes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to age, years of work, position, educational background and job satisfaction in nurses, otherwise, sex, differences of educational level,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um and major in students. **Conclusion:** It is needed a further study as below: to develop an education system which is to improve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o upgrade the quality of educator; to develop a teaching method program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to improve teaching effectiveness.

Key words : Nurses, Nursing, Students, Teaching, Effectivenes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young, Hee Kyoung
 College of Nursing,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168-1 1-ga Junghwasan-dong Wansan-gu Jeonju Jeollabuk-do 560-714, Korea
 Tel: 82-63-230-7768 Fax: 82-63-231-7790 E-mail: hhk00@hanmail.net